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④방편품 ❷일대사인연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舍利弗)의 간청을 세 번씩이나 거절하다가 "그대가 거듭 세 번씩이나 간청하니 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 더욱 자세히 알기 쉽게 말하겠다"며 청법(請法)을 승낙하셨다. 그러자 이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5천 명이 별안간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 까닭은 이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죄업이 무겁고 깊을 뿐만 아니라 증상만(增上慢)에 빠져 있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척해 왔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잠자코 계실 뿐 말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증상만에 빠진 사람들은 물러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시며 설법을 시작하셨다. "모든 부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법을 설하므로 그 참뜻은 알기 어렵다. 나 또한 무수한 방편으로 갖가지 과거의 사연과 비유와 적절한 말로써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고 있지만, 진실 그 자체는 헤아려 보거나 분별해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니, 부처님들만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모든 부처님 세존들은 오직 하나뿐인 중대사를 인(因)과 연(緣)으로 해서(一大事因緣), 이 세상에 모습을 짓고 출현하신다. 사리불이여, 무엇을 가리켜 부처님 세존들이 오직 하나뿐인 중대사(目的)를 인과 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느냐 하면, 과거 · 현재 · 미래의 부처님들은 일체의 중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知見)를 스스로가 열어서(開) 청정한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며, 또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나타내 보이기(示)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며, 또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悟) 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며, 부처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서(入) 평등상과 차별상을 모두 아는 일체종지(一切種智)를 깨닫는 길(道)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가리켜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하나의 일대사(目的)를 원인(因)과 조건(緣)으로 해서 세상에 출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당장 중생들에게 최고의 가르침 설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하고 이 가르침 안 받으니, 이런 사람 과거세에 선행 쌓지 않았으며 5관 욕망 집착하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번뇌 끊지 못하더니 여러 욕망 인연되어 3악도에 떨어지고 육도(六途)를 헤매면서 여러 고통 갖추어 겪고 전생의 악업은 미세한 모습으로 모태(母胎) 속에 들었다가 날 적마다 불어나니 박덕하고 복도 없어 뭇 고통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 위해 방편을 베풀어 여러 고통 끊는 길 말해 마음의 평안(涅槃) 가르쳤으나, 이는 소승의 멸제일 뿐 참 열반 아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본래부터(諸法從本來) 평안하고 조화되어 조용한 모습이라(常自寂滅相)" 하시며 지금까지 설한 열반은 소승의 열반이며 대승의 열반은 모든 존재가 바로 열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보살만을 교화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항상 이 하나의 목적 즉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고 하시며 앞으로 부처님이 될 보살은 소승의 열반을 구하지 말고 자기들도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 것을 깨닫도록 하셨으니,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환이며 대선언(大宣言)이라 할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부처 출현은 일체중생 해탈선언

모든 존재 본래부터 열반 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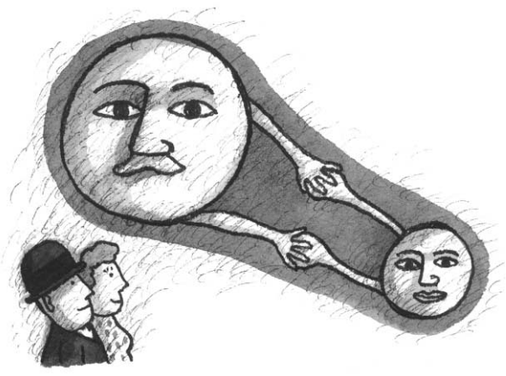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순리 따르는 별의 삶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❻

근접쌍성과 블랙홀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보다 어두운 별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북극성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국자 모양을 한 북두칠성이 보인다. 이 별자리에서 국자 부분의 끝에서 두 번째 별이 미자르라 불리는 3등급의 별인데, 어두운 5등급의 별과 쌍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가을철에 잘 보이는 쌍둥이자리의 카스트로(2등급)도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개의 별이 모여 있다.

별은 거대한 분자성운에서 집단으로 탄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별들의 집단은 성단이라 일컬어진다. 성단 내에서 돌아다니는 별이 다른 별과 아주 가까운 거리를 지날 때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두 별이 중력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두 별은 쌍을 이뤄 평생을 지내게 된다. 이러한 쌍성이 또 다른 별을 끌어들여 3중성 또는 4중성 등 보다 더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쌍성 중에서 두 별이 특히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근접쌍성'이라 한다. 인간 사회에 빗대자면 남녀가 부부로 짝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한다. 짝을 잘 만나면 인생을 순조롭게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홀로 살아가는 경우보다 더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다. 쌍성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쌍성

자연 섭리대로 공생
소멸 이후는 블랙홀서 공존

질량이 매우 큰 별과 아주 작은 별이 근접쌍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별이 가벼운 별보다 더 빨리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늙어간다. 이 과정에서 무거운 별은 노년기에 들어 팽창하면서 많은 물질을 방출한다. 그런데 쌍성의 경우에 두 별이 서로 미치는 인력 때문에 방출된 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공간 안에 갇히게된다. 이것을 로쉬 영역이라 하는데 각 별 주위에 하나씩 존재하며 서로 영역을 접하고 있다. 무거운 별에서 방출된 물질이 그 별 주위의 로쉬 영역을 다 채우고 나면, 접하고 있는 로쉬 영역을 통해 가벼운 별 쪽으로 물질이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물질 이동으로 가벼운 별의 질량이 증가하면 처음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을 따르지 못하고 새롭고, 복잡한 일생이 다시 시작된다. 두 별의 질량이 비슷한 근접쌍성의 경우에는 두 별이 비슷하게 늙어 가면서 질량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진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두 별의 질량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별이 늙어가면서 방출한 물질이 가벼운 별 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 별의 질량이 처음 무거운 별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러면 이 별이 더 빨리 진화하면서 방출한 물질이 다른 별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시간 차이를 두고 두 별 사이에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질량이 태양의 30배인 별과 8배인 별로 이뤄진, 질량 차이가 아주 큰 근접쌍성의 경우를 보자. 600만년쯤 지나면 무거운 별이 빠르게 늙어 가면서 물질을 방출하고 이 중 일부는 가벼운 별 쪽으로 이동한다. 700만년이 되면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2배인 블랙홀을 남긴다. 그리고 가벼운 별은 무거운 별에서 흘러 들어온 질량 때문에 태양 질량의 23배로 증가되면서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1100만년쯤 되면 이 별도 초거성이 되어 임종을 준비한다. 이때 블랙홀 쪽으로 매우 빠른 물질 이동이 일어나면서 강한 X-선이 방출된다. 빛마저 빠져 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X-선과 거성의 운동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00만쯤 되면 거성도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2.5배인 블랙홀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일부의 물질은 이미 존재하는 블랙홀 쪽으로 흘러 들어가 질량을 배로 증가시킨다. 이후부터 두 천체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로써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된다.

부부

차별지에 바탕 둔 부부관계
인연 고리 맺고 끊어

근접쌍성은 서로간에 물질의 주고받음이 있지만 이에 최소의 에너지로 순응 · 적응하며, 또 항상 최소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가? 쌍을 이루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곁을 떠날 경우에는 별과 달리 홀로 남게 된다. 비록 육신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마음 속의 쌍은 무덤까지 같이 갈 수도 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별의 경우와 달리 인간의 쌍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연의 고리를 서로 당기고 놓고 하는 과정을 지나다가 완전히 고리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쌍성의 인연관계는 자연적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반해 부부관계는 차별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개체 존재의 가치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최소작용의 원리를 따르는 평상심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소중한 인류문화유산 파괴돼도 망각될 수는 없다"

지구촌 불교 / 바미안대불 복원작업

아프간 중부 힌두쿠시 산맥 깊숙한 곳에서 1,500년간 높이 54m의 위용을 자랑했던 바미안 대불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최근 스위스에서 아프간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아프간 연구소'(Afghanistan Institute)와 인터넷에서 세계유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 '7대 불가사의 사회'(7 Wonders Society) 등이 연대해 바미안 대불을 복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탈레반에 의해 대불이 파괴되자 스리랑카의 불교단체인 부처님 사회(Bodhi Society)가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엔 온 · 오프라인에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두 단체가 대불 복원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1997년 12월 22일에 찍힌 파괴되기 전의 바미안 대불 모습.

두 단체는 우선 2002년 봄까지 스위스 드번도르프시에 있는 아프간 연구소에서 사진을 토대로 바미안 대불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한다. 바미안 대불의 3차원 그래픽은 파괴된 바미안 대불을 9분의 1로 축소한 6m 크기의 모형 대불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모형 대불은 아프간 석공들의 손을 빌려, 바미안 대불의 석재인 붉은 사암을 사용해 건립된다. 또한 두 단체는 정확한 복원을 위해 12~3세기에 중국인

'7대 불가사의 사회' 중심으로 복원준비
2년내 완성 … 아프간 평화정부에 전달

순례지들과 아랍의 지리학자들이 남긴 불상 기록과 1970년대 오스트리아 지리학자가 측정한 탐사 자료를 사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은 파괴되더라도 결코 망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7대 불가사의 사회'의 버나드 웨버(Bernard Weber) 대표는 "대불 복원 계획은 2년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불 복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웨버 대표는 "복원된 바미안 대불은 아프간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아프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간 연구소 폴 부케러(Paul Bucherer) 소장은 "54m 대불을 복원하는 데 약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미안 대불에 대한 아시아 불교국가들의 관심이 커, 복원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라 게 부케러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크리스찬 만하트(Christian Manhart) 아시아 유산 담당관은 "파괴된 문화유산을 재건하는 일은 문화유산 국제규약인 베니스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유네스코 유산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예외 조항을 찾고 있어 복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